



GWANGJU F.C MATCHDAY PROGRAM

K LEAGUE
CHALLENGE



2013 No.13



VIEW

Today's Home Match



광주 vs 경찰



10월 6일 (일) 14:00

Next Home Match

광주 vs 부천 10월 20일 (일) 14:00



www.gwangjufc.com



@GWANGJU_FC



/gwangjufc



/gjfc0

Photo Gallery

2013/09/28 (토) 14:00 수원전



Data

2013 K리그 챌린지 순위

K LEAGUE
CHALLENGE

순위	구단	경기수	승점	승	무	패
1	경찰 축구단	26	55	17	4	5
2	상주상무피닉스	26	53	15	8	3
3	광주FC	26	38	11	5	10
4	FC안양	26	36	10	6	10
5	수원FC	26	32	8	8	10
6	고양FC	26	32	8	8	10
7	부천FC	26	25	6	7	13
8	충주함멜	26	16	4	4	18

광주 FC 최근 5경기 전적

K LEAGUE
CHALLENGE

대회명	날짜	홈	스코어	원정
현대오일뱅크K리그챌린지2013	2013/09/01	광주	1 - 0	부천
현대오일뱅크K리그챌린지2013	2013/09/08	고양	5 - 1	광주
현대오일뱅크K리그챌린지2013	2013/09/15	광주	1 - 2	안양
현대오일뱅크K리그챌린지2013	2013/09/23	충주	0 - 1	광주
현대오일뱅크K리그챌린지2013	2013/09/28	광주	2 - 1	수원

광주 FC 2013시즌 득점 순위

K LEAGUE
CHALLENGE

순위	선수명	득점	경기수	득점률
1	루시오	10	26	0.38
2	김은선	4	20	0.20
3	김호남	4	22	0.18

광주 FC 2013시즌 도움 순위

K LEAGUE
CHALLENGE

순위	선수명	도움	경기수	도움률
1	루시오	8	26	0.31
2	김호남	5	22	0.23
3	박현	2	17	0.12

K리그 챌린지 2013 광주FC 홈 경기 일정

날짜	시간	HOME	AWAY
2013.04.20(토)	14:00	광주	고양
2013.04.28(일)	14:00	광주	경찰청
*2013.05.08(수)	19:00	광주	충주
2013.05.13(월)	19:00	광주	안양
2013.06.06(목)	14:00	광주	부천
2013.06.09(일)	19:00	광주	경찰
2013.06.30(일)	19:00	광주	상주
2013.07.06(토)	19:00	광주	충주
2013.08.04(일)	19:00	광주	고양
2013.08.19(월)	20:00	광주	경찰
2013.09.01(일)	16:00	광주	부천
2013.09.15(일)	16:00	광주	안양
2013.09.28(토)	14:00	광주	수원FC
2013.10.06(일)	14:00	광주	경찰
2013.10.20(일)	14:00	광주	부천
2013.11.03(일)	14:00	광주	안양
2013.11.10(일)	14:00	광주	충주
2013.11.23(토)	14:00	광주	경찰

*FA CUP 경기

 중흥S-클럽	 현북산강도시 라주	 KJB 광주은행
 Joma	 우미건설	 조신대학교병원
 GS&POINT	 광명특화기업 주식회사 그래미	 사명: 루테그리드 김동 롯데시네마 수환 · 광주
 광주월드컵점	 바은안과21	 천연의료재단 HIB HANA 의료 법인
 사람상 신문 SRB Challenge Square	 TS 교통안전공단	 경주 지리산산상
 모아레포초터운(주)	 광주순왕병원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해모수 히트니스 클럽	 중흥 골드스퀘어&리조트 Jungheung Gold square&resort	 광남일보
 중흥월드 홍익재단	 민속촌 MindokChun	 무진주

Review

한 달 만에 안방에서 짜릿한 복수전



광주FC가 28일 오후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제26라운드 수원FC와의 경기서 전반전에 선취골을 허용했으나 후반전 여름과 이광진의 연속 골로 2-1 역전승을 거뒀다.

중원의 핵심 김은선이 충주전에서 당한 부상 후유증으로 결장해 전력 누수가 있었음에도 광주는 전반 초반부터 우세한 경기를 펼쳤다. 하지만 좋은 흐름 속에 찾아온 몇 차례 찬스를 놓치면서 서서히 수원이 페이스를 찾았고 결국 먼저 실점하고 말았다. 전반 19분 광주 문전에서 혼전 끝에 흐른 볼을 수원 미드필더 유수현이 슈팅으로 연결했다. 김지성이 몸을 날리며 쳐냈지만 하필 골문 앞에 자리한 임성택의 발에 걸린 것.

하프타임을 통해 전열을 재정비 한 광주는 후반전에도 시작부터 맹공을 퍼부었다. 그리고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 기어이 동점골이 터진다. 후반 10분 수원의 왼쪽 측면에서 안동혁이 올려준 크로스가 PK박스 안쪽에서 헤딩 경합 끝에 살짝 뒤로 흘렀다. 이것을 잡은 여름이 수원 수비수 한 명을 제쳐내고 오른발 감아 차는 슈팅을 시도했고 절묘한 궤적을 그린 볼은 수원 골문 왼쪽 구석에 그대로 꽂혔다.

사기가 오른 광주는 공격의 고삐를 당겼고 이에 수원도 밀리는 상황 속에서 역습으로 광주의 뒤 공간을 노렸다. 하지만 이 날의 승리는 문전 집중력에서 앞선 광주의 몫이었다. 후반 35분 역습 상황에서 질풍같이 수원 진영으로 치고 들어온 루시오는 자신의 왼쪽으로 쇄도하던 이광진에게 패스를 내줬다. 이것을 이광진이 왼발로 잡아놓은 후 상대 GK와 일대 일로 맞선 상황에서 오른발로 밀어 넣으며 팀에 극적인 승리를 안겼다.

Preview

광주, 지금의 경찰이라면 꼭 잡아야 한다!



최근 2연승의 상승세인 광주FC가 10월 6일 일요일 오후 2시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위기의 리그 선두'를 상대로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제27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9월 초-중순의 부진에서 벗어나 막바지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광주로선 핵심 멤버들의 대거 전역으로 전력누수가 극심한 경찰축구단을 상대로 승점 3점을 확보해야만 한다.

일단 주전 수비수인 임하람이 경고누적으로 이번 경찰전에 나설 수 없어 전력누수가 불가피하다. 그래도 정우인과 유종현이 버텨주고 있어 남기일 감독대행은 고민을 덜 수 있다. 충주전에서 부상을 당해 전반 초반에 교체되었던 핵심 미드필더 김은선도 아직은 경찰전 출장을 백 퍼센트 장담할 수는 없지만 회복 속도는 빠른 편이고, 지난 수원전에서 김은선을 대신했던 오도현이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부분도 긍정적이다.

중원에서는 '요즘 가장 뜨거운 두 남자들'로 단연 활기가 넘친다. 먼저, 여름은 최근 잠재해 있던 공격재능을 맘껏 발산하며 팀에 알토란같은 득점을 안겼다. 상대 문전에서 슈팅 찬스를 잡았을 때 보여주는 정확한 판단력과 깔끔한 슈팅 동작이 돋보인다. FC서울에서 임대해 온 이광진 역시 탄탄한 기본기와 날카로운 움직임을 바탕으로 결정적인 골들을 터뜨리며 불과 7경기 만에 광주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중이다.

최전방의 루시오는 최근 자신에게 집중되는 상대 수비수들의 견제를 역이용 해 2선 동료들에게 슈팅 찬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에도 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좌-우 날개 김준엽과 김호남의 성실함은 한결같다.

경찰 - '지팡이 빠진 포돌이'의 실체는 과연?



지난 월요일 상주상무와의 라이벌전에서 경찰축구단의 명암이 확연히 드러났다. 일단 김영후, 양동현, 배기종 등의 핵심 공격라인과 염기훈, 이치준 같은 찬스메이커들이 빠져나간 최전방과 양 측면은 그 무게감이 확연히 떨어졌다. 그나마 노련한 정조국과 FC안양 출신의 골잡이 고경민이 분전했지만 전체적인 슈팅 및 유효슈팅의 양과 질에서 상주의 상대가 되지 못했던 것.

그래도 오범석, 양상민, 이원재, 김동우 및 골키퍼 유현과 송유결 등 핵심 멤버들이 건재한 수비라인은 상주의 파상공세 속에서도 1실점으로 버티내는 탄탄함을 과시했고 문기환과 최광희도 중원에서 고군분투 하며 역습 시 꽤나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어냈다.

때문에 광주 선수들은 경찰의 전력누수 등을 머리에 담아두지 말고 이전 세 번의 맞대결 상황과 똑같은 조직력과 집중력을 바탕으로 전반전 초반부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경찰 유현

흔들리는 경찰의 마지막 보루

경찰축구단의 최후방은 전역자로 인한 전력누수가 적은 편이다. 그 가운데 매 경기 노련한 수비 리딩과 탁월한 슈퍼세이브를 선보이는 골키퍼 유현의 존재감이 조동현 감독의 시름을 적잖이 덜어준다.

Focus

박희성 - 지능, 활동량 그리고 날카로운 원발



박희성(26)의 주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드임에도 올 시즌 팀 사정상 왼쪽 윙백으로 포지션을 변경했다. 낯설 수밖에 없지만 빼어난 축구지능과 풍부한 활동량 그리고 무엇보다 리그 최고 수준의 정교한 원발로 공-수를 넘나들며 팀에 헌신하는 중이다. 비록 시즌 초반 부상을 당해 한동안 그라운드에 설 수 없었지만 복귀한 뒤 주전 자리를 꿰차고 변함없는 활약상으로 팀 동료들과 팬들의 굳건한 신뢰를 받고 있다.

다만 윙백은 본업이 아니기에 3~4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발 빠르고 힘 좋은 상대 측면 공격수들에 대한 일대 일 방어 그리고 중앙수비수들과의 커버플레이 등에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영리한 선수답게 금방 새 포지션에 적응하며 지금은 세련된 윙백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제 박희성에게 남은 과제는 "칼날 같다"는 평가를 받는 원발이 좀 더 개인의 공격포인트와 직결돼야 하는 부분이다. 다행이 가장 최근의 몇 경기에서 예사롭지 않은 슈팅과 크로스가 나오고 있어 조만간 팀에 '큰 선물'을 안겨줄 분위기다.